

가뜩이나 수업 일수 부족했는데...수능 영향 줄까 노심초사

광주지역 고교서 코로나 10명 확진 판정에 학부모들 불안 접촉했던 학생 다니는 학교 18개...진료소 찾는 학생 늘어 자가격리 해야 하는데 혼자 두자니 식사·학습 고민거리

“수능이 90일도 못 남았는데 같은 학교 학생들이 무더기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아이나 저나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광주시 서구 A고 2학년 학생 10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 학부모 뿐 아니라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초긴장 상태다. 당장,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과 접촉했던 또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만 무려 18개에 이르는 집에서도.

같은 중학교를 다니며 최근까지 어울렸던 학생들과 부모들은 친구들이 확진됐는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과 접촉했는지, 학원·스터디카페 등에서라도 이동 동선이 겹치진 않았는지 일일이 챙겨보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능을 86일 앞두고 고3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수업 일수가 부족, 자신감이 떨어져있는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교육당국도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확진된 학생들이 PC방과 동전노래방 등 학생들이 자주 찾는 장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나 휴여 여러 학교 학생들이 마주치는 학원 등을 매개로 한 n차 감염 우려마저 낳으면서 선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는 고교생들과 학부모들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A학교 학생 1명이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

학생 731명과 교직원 93명 등 824명과 가족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날까지 모두 학생 10명, 가족 2명 등 12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2학년생 291명 전원을 자가격리토록 조치했고 고3 학생들은 백신 접종을 마친 점 등으로 등교 수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능(11월 18일)을 불과 86일 남겨놓은 만큼 등교 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확진 학생들이 나온 상황에서 학교를 그대로 보내야 하는 게 맞는지 불안해하는 불모들이 적지 않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 아들과 함께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며 “아들이 백신을 접종을 완료했지만, 돌파 감염도 잇따르는데 불안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전수조사를 마친 A고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기타 학부모들의 검사 의뢰로 분주하다.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A고교 2학년생들 학부모들도 좌불안석이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 외에도 자가격리중인 일부 학생들이 인후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맛별이 학부모들은 여기에서 자가격리중인 고교생 자녀를 혼자 집에 두는 데 따른 식사, 학습 고민거리도 생겨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혼자서 비대면 학습을 제대로 할 지, 부모가 출근한 동안 휴대전화만 만지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자가격리를 제대로



“버스킹 공연 안돼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구시청 사거리 만남의 광장에 버스킹 금지 안내문이 내걸렸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킬 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는 “최근 전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로 확산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수능 전까지 개인방역에 철저하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등교 중인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

도 시끄럽게 떠들어서는 안된다.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청문절차 거쳐 최종 처분 확정 작년 취득 의사면허도 박탈될 듯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허가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를 허가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부산대는 조씨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전적 대학의 성적 3위, 공인 영어성적이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서류를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입학 취소나 입학 유지라는데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가 이전에 입학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없고,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공정위로서는 부담스러웠다고 생각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씨가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은 의사 면허 취소 여부까지 보고 인턴과정을 지속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24일 한일병원 관계자는 “최종 판단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의사 면허 취소 시 자연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두환 선고 전까지 재판 출석 않을 듯

“고령에 건강 안 좋아” 광주지법, 불출석 허가

전두환(90)씨가 향후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난 9일 재판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 점,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불출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점도 반영됐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지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뒤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재판 25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다.

이후 지난 1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고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